



7월 3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7.16	7.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299.31	1,347.14	↓ -3.55	↑ 35.21	785.17 '20/07/27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072.51	6,039.84	↑ 0.54	↓ -3.60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3,140.06	52,386.19	↑ 1.44	↑ 28.81	36,471.68 '20/07/16	53,158.85 '21/07/15
중국	상해종합	3,539.30	3,524.09	↑ 0.43	↑ 16.04	3,196.77 '20/07/24	3,696.17 '21/02/19
	심천종합	2,454.06	2,436.84	↑ 0.71	↑ 42.43	2,126.88 '20/09/28	2,491.97 '21/07/13
홍콩	H	10,152.95	9,885.42	↑ 2.71	↓ -9.09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셩	28,004.68	27,344.54	↑ 2.41	↓ -0.66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276.91	3,217.95	↑ 1.83	↑ 49.11	2,183.76 '20/07/16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7.16	7.9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0	2.19	↑ 0.70	↓ -122.00	2.16 '21/01/19	3.10 '20/07/29
인도네시아	6.37	6.56	↓ -19.30	↓ -69.70	5.89 '20/12/30	7.08 '20/07/20
인도	6.21	6.19	↑ 2.60	↓ -34.30	5.77 '20/08/05	6.25 '21/03/10
중국	2.95	3.00	↓ -5.00	↓ -19.60	2.87 '20/07/24	3.36 '20/11/19
한국	2.02	2.04	↓ -1.80	↑ 34.50	1.28 '20/07/30	2.20 '21/06/02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7.16	7.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10.00	22,992.00	↑ 0.08	↓ -0.70	22,944.00 '21/06/11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498.00	14,528.00	↓ -0.21	↑ 4.56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4.56	74.64	↓ -0.10	↑ 4.46	72.33 '21/02/24	75.46 '21/04/21
달러-위안 (CNY)	6.48	6.48	↑ 0.00	↓ -6.95	6.37 '21/05/28	7.02 '20/07/24
달러-원 (KRW)	1,139.79	1,148.85	↓ -0.79	↓ -1.39	1,081.81 '20/12/04	1,205.43 '20/0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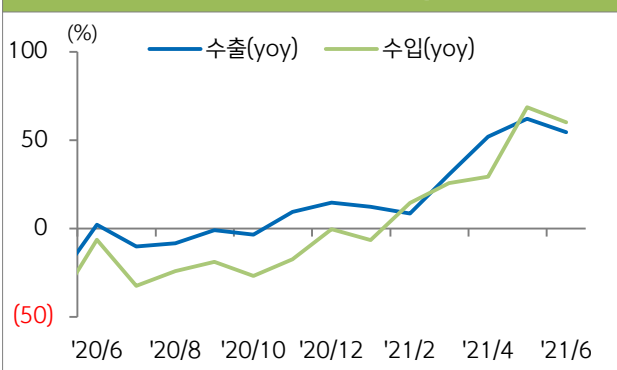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6월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흑자. 불안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선전한 수출이 버팀목

- ▶ 인도네시아의 6월 수출은 전년대비 +54.4%, 수입은 전년대비 +60.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6월 중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세를 보였지만, 6월 수출입은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였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석유류의 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과 함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 증가한 것이 배경이었음.**
- ▶ 6월 무역수지는 1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14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의 27.0억 달러보다 감소하였지만 **역전히 높은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연초대비 누적 118.6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에 있음.** 현재의 흐름이 유지된다면 2020년에 이어 연간 2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수 급증세는 이번주에도 이어지면서 1일 확진자수가 5만명을 넘어서고 1일 사망자수도 1천명 내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접종 및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치료제까지 사용을 검토하는 등 사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 7월 소비 및 투자 심리가 다시 부정적인 수준으로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임. **양호한 무역수지에 힘입어 외환보유고는 1,37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루피아와 환율도 달러당 14,500루피아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확진자수 증가세가 7월말까지 지속된다면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외국인 이탈을 자극할 수 있어 경계 필요한 상황**

인도네시아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 추이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고 추이



자료: Bloomberg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주요 뉴스





중앙은행, 21년 성장률 전망 3.8%로 하향 조정



❖ 요약 및 시사점

재무장관이 최근 정부가 전망하는 2021년 성장률 전망 범위를 하향 조정한 것에 이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성장률을 4%에 미달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현재의 델타변이에 의한 확진자수 급증이 투자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1~5.1% 수준에서 3.8%로 하향 조정하였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PPKM) 발효에 따른 것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달 동안 지속되고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낮아진다면 경제 성장률이 3.8%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중앙은행 총재가 의회에서 발언하였음.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PPKM)이 소비와 이동을 줄이면서 국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음.
-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향 중 하나는 가계 소비를 낮춤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는 부진한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임. 수요 부진은 물가 상승률을 낮게 만들어서 올해 연간 3%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수요 및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임. 올해 1~2분기에는 재정 지출과 非건설투자 경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났었음.
- 재무장관은 최근 인도네시아는 자바와 발리지역에서 취해진 긴급 사회적 거리두기의 악영향을 반영하여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3.7~4.5%로 하향 조정하였음.. 연초 잡아두었던 4.5~5.3%의 성장률 전망이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으로 인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음.



중앙은행, 상반기 중 정부채 130.83조 루피아 매입



❖ 요약 및 시사점

중앙은행은 상반기 중 국채 매입을 통해 정부의 마이너스 국채를 소화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고 있어 중앙은행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지원을 지속할 전망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상반기에 정부의 예산 조달을 위해 발행된 국채 중 120.83조 루피아를 매입하였다고 중앙은행 총재가 밝혔음. 정부의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정부채를 매입하여 지원하고 있음. 120.83조 루피아 가운데 45.4조 루피아는 국채 발행시장에서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매수하였으며, 75조 루피아는 경쟁 입찰 외의 추가 입찰을 통해서 매입하였음.
- ▶ 이러한 발행시장 매입 이외에도 중앙은행은 유통 시장에서 8.6조 루피아에 달하는 정부채를 매입하여서 루피아화 환율을 안정시키고 정부채권 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에 참여하였으며, 발행 및 유통시장을 통한 총 상반기 국채 매입 규모는 129.45조 루피아였다고 하였음.
- ▶ 지난해 중앙은행이 직간접적으로 매입한 국채 규모는 473.42조 루피아였는데, 75.86조 루피아는 발행시장에서, 397.56조 루피아는 국가 채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였음.
- ▶ 중앙은행장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 및 보건 회복 조치를 위한 재원 마련에 참여하여 부양을 지원하는 방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재무장관, 인도네시아가 국외 수입에 대해 과세 권한을 얻을 수 있다고 발언



❖ 요약 및 시사점

전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디지털세 도입, 조세 회피 방지에 대한 합의를 이룸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내분 과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재무장관이 평가하였음.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검토중인 조세개혁 조치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중임

-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얻은 수입으로부터 과세 권한을 할당 받을 기회가 있다고 재무 장관이 말하였음. 이것은 OECD 및 G20 국가들 139개 국가 가운데 132개 국가가 승인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임.
- 재무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서 국제 세금 시스템에 동등한 배분을 통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념을 도입해서 최저한세 15%를 적용하는 방향이 세워졌다고 하였음.
- 재무장관은 자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불공정한 세율 인하 경쟁이 완화되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조세 회피처 이용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음.
-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세제 개혁과 이번 조치가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제 최저한세와 디지털세에 대한 과세 방향을 도입하는 세제 개혁을 국내 상황에 맞춰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